

새벽에 부르는 이름

출 1:1~14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이름들’ (쉐몰)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번성한 이름으로 출애굽한다. 또한 주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계시하셨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듯이, 새벽마다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자.

새로운 체제

이집트에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나온다. 이 구절은 창세기 46장 8절을 그대로 반복한 것인데, 출애굽기가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이집트에 있는 요셉까지 합친 야곱의 모든 자녀들은 일흔 명이였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는 칠십인역을 따라서 일흔 다섯 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이집트에 있는 요셉의 아들과 손자를 합한 숫자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고, 번성하여 수가 늘어났으며, 따라서 세력도 커져 마침내 그 땅에 가득 퍼졌다(1:7).

이는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하나님 말씀의 성취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계약이 성취된 것이다(창 17:1-8, 26:1-5, 28:13-15). 그러나 그들은 땅을 정복하지 못했다. 오히려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다. 땅 없이 남의 땅에서 번성하는 꼴이 되었으니 당연히 심한 텃세를 받아야만 했다.

이스라엘의 과제는 남의 땅에서 떠나 자신들의 땅을 찾는 것이었다.

요셉은 칠 년 흉년의 때를 미리 대비하여 이집트를 멸망에서 건져낸 인물이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 덕분에 나일 강 삼각주 지역의 노른자위 땅인 고센 땅에서 특혜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애굽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통치 하에 있었다.

새로운 왕조로 바뀌어 옛 체제는 몰락하고 새 체제가 이집트를 통치하게 되었던 것이다.

구체제 아래서 특혜를 누리던 이스라엘 백성은 바뀐 체제 아래서 핍박받는 상황에 처하였다.

새로운 왕은 숫자도 많고 힘도 센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한다. “이 백성, 곧 이스라엘 자손이 수도 많고 힘도 강하다”고 한다.

혹독한 압제

옛 정책이 바뀌고 새 정책이 등장했다.

요셉의 공로를 인정하여 이집트 노른자위 땅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살게 했던 정책은 옛날 정책에 불과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출범하여, 이스라엘인들을 신중하게 대처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의 수가 늘어나고 힘이 더욱 세질 것과 전쟁이 발발하면 적과 연합하여 이집트를 치고 떠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억압을 받을수록 그 수가 더욱 불어나고 자손이 번성하였다.

그러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들에게는 일의 보람도 자율성도 없었고, 불리한 노동 조건 아래서 압제를 받으며 시달릴 뿐이었다. 애굽의 본토민보다 불리한 노동 조건 아래서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설의 역군들로 전락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번성하자 더욱 혹독한 압제가 가해지고 따라서 그들은 새 탈출구를 찾게 된다. 핍박받을수록 번성하고 강해지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된 이름들이다.

막다른 골목에서 인간의 방법 아닌 제 3의 방법, 곧 하나님의 간섭이 함께하신다.